

<해외 하계 계절학기 체험 후기>

산림환경자원학과 전새봄

해외가 너무나 가고 싶었다. 코로나로 인해 성인이 된 후 해외에 거의 가지 못했고, 학교에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으로 해외를 나가보고 싶었다. 그래서 GUGU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했고, 그 결과 너무나 기쁘게도 추가 합격을 통해 UTCC 계절학기를 태국에서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는 것도 처음이고, 태국이란 나라도 낯설었고, 같이 가는 충남대 학생들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었다. 그러나 사전에 UTCC를 가는 충남대 학생들과 만남을 가져서인지 방콕에 도착한 후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학생들과 친해지고, 방콕에 잘 적응하였다. 서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룸메이트와 한 달살이를 할 때 안 맞으면 많이 불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룸메이트와 너무나 잘 맞아서 너무나 좋은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고, 밖이나 안이나 편안하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었다.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을 못 먹어서 태국 음식에 어떻게 적응할까 걱정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첫 주에 먹은 음식들이 입맛에 맞지 않아 다들 체인점 음식을 찾았다. 나 또한 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았었고, 2주차부터는 길들여진 타인지, 맛집에서 먹어서인지 완전히 적응되어 너무나 맛있게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걱정이 되었다. 실제로 초반에는 교수님께서 배려하셔서 천천히 말씀하셔서 수업을 잘 따라갔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 강의속도에 따라가기에 살짝 벅찼다. 그렇게 될 때면, 수업이 끝난 후 숙소에서 자아 성찰을 하고 나서 룸메이트와 함께 짧게라도 영어프로그램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영어공부를 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면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방콕에 있는 UTCC에 가면 태국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UTCC로 유학하러 온 동남아 친구들과 함께했고, 그중 미얀마 친구들과 더 친해졌다. 처음에는 서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서 소통의 오류로 오해할 때도 있었지만, 그 친구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고, 먼저 장난도 치면서 자연스럽게 약속도 잡고 만나면서 친해졌다. 만날 때 영어를 쓰는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고, 나의 부족한 영어 실력에 아쉬움이 남았다. 그렇지만 대화할 때는 바디랭귀지를 함께 사용하면서 말하고, 최대한 경청하며 외국인 친구들의 말을 귀담아들었다. 다음에 해외에 나가기 전에는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더 열심히 하여 향상된 실력으로 외국인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하고 싶다.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미얀마 친구들에게 한국게임들을 영어로 알려주었고, 미얀마 친구들은 기타연주와 굿바이 송을 불러주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다. 다시 영상으로 확인할 때면 눈물이 날 것 같다. 서로의 나라에 방문하게 되면 가이드가 되어 서로를 투어 시켜주기로 했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짧았지만 꽤 많은 얘기를 했던 독일 친구들, 태국에 있는 한 달 중에 일주일 동안 독일 학생들이 UTCC로 계절학기를 들으러 와서 그들이 있는 동안 몇 번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초반에 OT를 들을 때에 독일 학생들이 온다는 소식을 접했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들이 오기 전 룸메이트와 함께 숙소에서 간단한 독일어 회화를 공부했었다. 그러나 초반에는 대화할 기회가 적어 인사도 못 나누다가 중반쯤 돼서야 일정이 겹쳐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눴다. 어느 날은 어쩌다 보니 독일인 친구와 같이 버스 옆자리를 앉게 되어 그날 온종일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서로의 나라 언어에 대해 알려주고, 서로의 관심사를 얘기하면서 20년 치 영어 회화를 했던 것 같다. 또한, 미리 공부해뒀던 독일어 회화를 보여주니, 신기해하며 칭찬해주었다. 옆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듣던 한국인 친구들이 발음이 아주 좋아졌다고 칭찬해주었다. 또한, 같이 몸을 쓰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서 그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평소 교환학생에 관심 있던 나는 독일 학생들을 만나면서, '독일로 교환학생을 가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 학생들이 단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독일 학생들 전부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게 아쉬웠다.

정말 즐거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초반에 짜투짜 시장에서 발목을 접질려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앞으로의 일정들이 많고, 많은 움직임이 있는 활동들이 남아있어서 걱정되었었다. 하지만 담당 교수님과 국제교류본부 선생님께서 걱정해주시고, 같이 다닌 친구들이 응급처치를 도와주고, 약도 사다 주고, 빌려주었다. 주위 사람들 덕에 잘 휴식을 취해서 잘 회복할 수 있었다. 덕분에 남은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었다.

태국 날씨의 경우 야외는 덥지만, 실내에서는 온종일 에어컨을 켜서 추웠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나서 일정 중에 감기에 심하게 걸렸던 적이 있다. 그때는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수업을 듣기 버거울 정도였던 적도 있었지만, 잘 이겨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는 별거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짧은 시간이겠지만, 나에게서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알찬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해본 적 없었던 것들을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경험해봤고, 많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데도 한 달이라는 기간은 외국 학생들과 교류하기에는 아쉬운 시간이라고 느꼈고, 다음엔 1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가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교환학생에 대한 꿈을 더 구체화할 수 있었고, 영어성적을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꼭 교환학생을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해외 계절학기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전에는 다들 요구하기 때문에, 해야 하므로 억지로 영어를 공부했다면, 이제는 즐기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재밌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3학년이 되면서 슬슬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지친 일상에 도전이라는 단어는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간을 통해 내면에 갇혀 있던 나

자신을 깨운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제부터 도전하는 삶을 살아봐야겠다는 도전정신이 생겼고, 자신감이 생겼다. 누군가 계절학기 학점교류로 외국대학에 다녀오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 없이 바로 강력히 추천할 것이다. 그만큼 너무나 후회 없이 재밌고 다양한 경험을 했다. 이제는 추억으로 남겠지만, 그 행복한 추억들이 앞으로의 날들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